**연중 제27주일(2018년 10월 7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요즘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요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은퇴하고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부부가 지내는 시간이 많아 지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내 분들이 불만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부부관계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는 열심히 다투고 삽니다. 제가 일주일에 고백 성사와 면담을 평균 약 30건 정도 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결혼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다들 못 살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럼, 그만 살고 헤어지세요”하면 더 난리나요. 가만 들어보면, 사실 별 문제도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이 조금씩 달라지는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남편은 점점 더 소심해 지고, 짜증도 잘내고, 쉽게 우울해 하고, 아내분들은 점점 무관심해지고,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역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래 전에 한국에서 유행한 ‘간 큰 남자’ 시리즈가 그런 현상을 잘 말해 주죠. 하루에 한끼 밥만 챙겨주면 되는 남편은, ‘일식씨,’ 두끼 챙겨줘야 되면, ‘두식이,’ 세끼를 다 챙겨줘야 되면, ‘삼식이 놈,’ 그런답니다. 요즘 새로 나온 것이 하나 있어요. 종종 간식까지 챙겨줘야 되는 남편은? ‘종간나 새끼’랍니다. 북한과 평화 무드가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에 북한 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또, 부인이 외출하려고 하는데, 따라가려고 한다든지,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면 ‘간 큰 남자’랍니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고 붙어 살려면 잘 해야 한답니다.

물론 우스개소리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아무튼, 부부 관계나 결혼 생활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성인군자가 되더라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떤 남자분은 그럽니다. 자기는 자기 아내에게 정말 고맙답니다. 제가 “왜요?”하고 물었더니, 자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래 저래 혼자 살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1독서의 창세기 말씀.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태초에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합니다.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죠. 흙으로 빚어낸 다음, 숨을 ‘훅’하고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모습은 ‘흙’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하느님의 숨결, 즉 생명을 빼내고 나면, 다시 흙만 남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운명입니다. 다행히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숨결인 생명이 숨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짝을 만들어 줍니다. 여자를 남자와 똑같이 흙에서 빚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듭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없어서도 안되고, 뗄수 없는 ‘한 몸’인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하는 말이, “내 뼈에서 나는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하고, 기쁨에 넘쳐 하와를 반깁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항상 곁에 두고 가슴으로 사랑해야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전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부부 관계입니다.

제가 혼인 성사 주례때, 신랑 신부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에 얽힌 러브 스토리입니다. 멘델스 존이 작곡한 ‘결혼 행진곡’은 셰익 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희곡에 나오는 음악이예요.

멘델스존은 이 ‘결혼 행진곡’을 작곡할때, 할아버니의 결혼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멘델스존의 할아버지는 태어날 때 부터 아주 작고, 못 생긴데다, 곱추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때,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는데, 근처 이웃에 사는 어떤 상인의 외동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요. 그런데, 이 소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었어요. 완전히 둘이 마치 미녀와 야수같은 모습이었죠.

이 곱추 청년은 그 아름다운 소녀를 몰래 사랑하면서, 너무나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못생긴 곱추 청년을 쳐다도 안보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곱추 청년이 말을 걸려고 그 소녀의 집으로 갑니다. 계단 밑에 서서, 그 소녀에게 겨우 말을 걸 수 있게 되었어요.

곱추 청년이 묻습니다. “당신은 결혼이 하늘에서 맺어준다는 사실을 믿나요?” 그 소녀는 쳐다도 안보고 수줍게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곱추 청년이 계속 말합니다. “남자아이들은 태어날때, 하늘에서 주님이 어떤 여자와 결혼할 것인지 미리 짝을 지어 준대요. 저도 어릴때 꿈에 하느님이 제 신부감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와 결혼할 그 신부가 글쎄 곱추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매달려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 신부대신 차라리 제가 곱추가 되게 해주세요. 곱추 여인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차라리 제가 곱추가 될테니까, 제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곱추 청년의 이 말을 듣고, 그 소녀는 그제서야 얼굴을 들어 처음으로 이 청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살며시 손을 잡아 줍니다. 나중에 이 어여쁜 소녀는 마음씨 고운 그 곱추 청년과 결혼을 하고, 평생 금실 좋은 부부로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멘델스존 할아버지 할머니의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멘델스존이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에 나오는 ‘결혼 행진곡’을 작곡했답니다.

제가 혼인 주례할때 신랑 신부에게 이 이야기를 항상 해요.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준 것이고, 단순히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진짜로 희생하고, 손해보고, 서로 감싸주고,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살때 진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손해 안보려고 하고, 서로 희생 안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고, 용서도 안하고, 서로 배려도 안하고, 내 고집만 부리고 사니까, 상처주고 헤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약간 손해도 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 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 더 아름다운 인생이고, 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랑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맨날 싸우고 다투고, 갈등과 긴장으로 인상 찌푸리고 살지 마시고, 속 팍팍 끓이면서 살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아름답게 이쁘게 살아 갑시다!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